

‘자전거 탄 풍경’ 가을을 물들이다



21일 광주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 2012 Green 자전거축제에서 이정선(왼쪽에서 두 번째)씨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호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주최 ‘2012 그린 자전거축제’ 성황
로드레이싱 50km ... 시·도민 함께 도심 달궜

은분행이 가을 도심을 달궜.
광주일보·광주시·전남도가 주최한 2012 Green 자전거축제가 21일 광주·전남일원에서 열렸다.
광주시사이클연맹과 광주시생활체육회 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한 축제는 광주상무시민공원을 출발해 동산대앞교차로-대산삼거리-서창교를 돌아 광주상무시민공원으로 돌아오는 로드 레이싱(50km) 경기를 진행했으며, 13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해 가을을 달궜.

이 전개됐다.
2009년 대회 우승자인 이정선(시니어부·광주프로바이크클럽)씨가 참가자 중 가장 빠른 1시간24분15초10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3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허정욱·김승준씨가 그 뒤를 이었다.
베테랑부에서는 1시간24분16초45의 김홍섭(대전슈퍼바이크)을 시작으로 김성우(대전슈퍼바이크), 장인석씨가 순서대로 완주했다. 남자 마스터부 우승은 1시간24분15초65의 조덕행(대전슈퍼바이크)씨가 차지했다. 광산엘티비의 김희권씨와 윤강수씨는 2·3위에 올랐다.
60세의 김중호씨는 1시간24분18초75에

질주를 끝내며 그랜드마스터부의 우승자가 됐다. 허정욱(무등MTB), 김영호(서산경찰MTB클럽)씨도 타이틀을 잇는 질주를 선보이며 시상대에 올랐다.
여자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전희정(광산엘티비)씨가 1분29초34초80의 기록으로 여성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고, 조숙희(대전슈퍼바이크)씨와 신영란(무등 MTB)씨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여자 베테랑부의 우승은 문소영(무등 MTB·1시간30분44초75)씨에게 돌아갔다. 김세정(철단 MTB)씨와 이정원(수안 MTB)씨는 그 뒤를 이으며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 Green 자전거 축제 순위
남자
시니어부 (18~30세) 1 이정선 광주프로바이크클럽, 2 허정욱 개인, 3 김승준
베테랑부 (31~40세) 1 김홍섭 대전슈퍼바이크, 2 김성우, 3 장인석 개인
마스터부 (41~50세) 1 김희권 광산MTB, 2 김희권 광산MTB, 3 윤강수 개인
그랜드마스터부 (51세이상) 1 김중호 메리다레이싱, 2 허정욱 무등MTB, 3 김영호 서산경찰MTB클럽
여자
시니어부 (18~30세) 1 전희정 광산MTB, 2 조숙희 대전슈퍼바이크, 3 신영란 무등MTB
베테랑부 (41세이상) 1 문소영 무등MTB, 2 김세정 철단MTB, 3 이정원 수안MTB

재규어스 홈런 4방 ‘대폭발’

무등기 사회인야구 지왕리그
은 홈런포를 날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왕리그
▲1경기
콜가이스 2203130-11
삼지토건 0220010-5
△승리투수 : 김재욱
△홈런 : 김선일(4회2점)·김병조(4회1점·이상 콜가이스), 정민호(2회1점)·정승창(2회1점,6회 1점·이상 삼지토건)
▲2경기(4회 콜드)
답양애 0000-0
재규어스 254X-11
△승리투수 : 홍성준
△홈런 : 김용신(2회3점,3회2점)·김승걸(2회1점)·홍성준(3회2점·이상 재규어스)

“자전거는 내 삶이죠”

남 시니어부 우승 이정선



“기대하지 않았는데 목표 이상의 성적을 기록해서 기분 좋습니다.
시니어부에 출전한 이정선(30·광주 치평동)씨가 3년 만에 대회 우승컵을 제정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1회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3위를 목표로 즐겁게 레이스를 하자고 생각했는데 우승을 차지했다”고 웃었다. 여유있는 포스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남다른 실력을 과시한 이씨는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베테랑이다.
이씨는 “은퇴한지 8년이 됐지만 여전히 자전거가 좋아서 자전거와 함께 살고 있다.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활력소이기도 하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좋은 운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딸 위해 폐달 밟았다”

남 베테랑부 우승 김홍섭



“지난해 개인전 7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 1년 열심히 달렸어요.
대전슈퍼바이크 회원인 김홍섭(38)씨가 남자 베테랑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김씨는 “오늘 날씨와 코스도 라이딩에 많은 도움을 줬고, 결승선에서 기다릴 아내(34)와 딸(3)을 생각하면서 폐달을 밟았다”고 우승 비결을 설명했다.

“체중관리 최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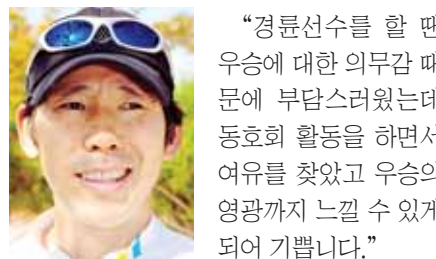
女 베테랑부 우승 문소영



“남편과 함께 꾸준히 연습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여자 베테랑부 우승은 무등MTB 문소영(34·광주 주월동)씨가 돌아갔다. 평범한 주부였던 문씨는 9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전거 마니아였던 남편(39)의 조언 때문이었다. 이번 자전거축제도 남편의 권유로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했다.
문씨는 “남편이 식단에서부터 훈련계획까지 도와줘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내년 대회에는 남편과 함께 출전해 나란히 1등을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항상 함께 운동하는 회원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했다.

“코스 너무나 환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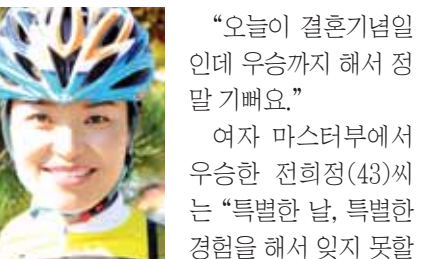
남 마스터부 우승 조덕행



“경륜전수를 할 땐 우승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유를 찾았고 우승의 영광까지 느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남자 마스터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덕행(48·대전)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타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할수록 정말 좋은 운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경륜전수로 이름을 날리던 조씨는 현재 대전에서 자영업자를 하며 동호회 활동에만 열심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광주를 특별히 찾았다. 조씨는 “대회 하루 전날 광주에 와서 미리 코스를 살펴봤는데 코스도 안정적이고 경치도 최상이었다”며 “인상에 남는 멋진 대회였다”고 말했다.

“결혼기념일에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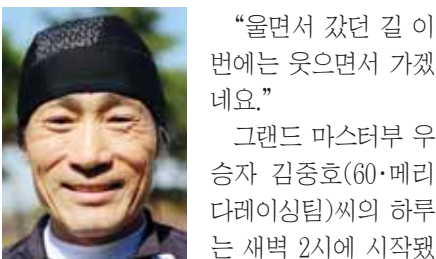
女 마스터부 우승 전희정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우승까지 해서 정말 기쁘요.
여자 마스터부에서 우승한 전희정(43)씨는 “특별한 날, 특별한 경험을 해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씨는 Green자전거축제가 키운 유망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참가한 2009년 대회에서 열렬하게 우승을 차지했고, 꾸준히 성적이 좋아 3년 만에 다시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씨는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 첫 번째 차지한 우승이라 더 값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부부 자전거 마니아. 이번 대회 남자 마스터부 준우승을 거둔 김희권(43)씨가 그녀의 남편이다. 전씨는 “남편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자전거로 건강 되찾아”

남 그랜드마스터부 우승 김중호



“울면서 왔던 길 이번에는 웃으면서 가겠네요.
그랜드 마스터부 우승자 김중호(60·메리다레이싱팀)씨의 하루는 새벽 2시에 시작됐다. 지난해 낙차 사고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부지런히 길을 나선 김씨는 이번에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씨는 “지난 해에는 레이스 초반에 넘어지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15년 전 성인병을 이기기 위해 시작했던 사이클이 김씨에게는 이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김씨는 “매년 20회 정도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건강도 되찾고 살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되찾고 싶어서 사이클에 매력을 빠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